

한국문헌정보학 교육에서 정보이용자교육 교과과정 모형개발 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ar Model Development for Information User Instruction in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김 태 경(Tae-Kyung Kim)**

목 차

- | | |
|-----------------------------|------------------------------|
| 1. 서론 | 4.2 설문조사 결과요약 |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5. 교과 모형 개발 |
|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 5.1 정보이용자교육 교과모형 개발을 위한 예비단계 |
| 2. 이론적 배경 | 5.2 정보이용자교육 교과모형 개발의 계획준비단계 |
| 2.1 문헌정보학 교육과 정보이용자교육 | 5.3 정보이용자교육 교과모형개발 계획 |
| 2.2 정보이용자교육에서 사서의 역할 | 5.4 정보이용자교육 교과모형 제안 |
| 2.3 선행연구 | 5.5 모형의 활용과 평가 |
| 3. 국내외 정보이용자교육 교과목 개설 현황 비교 | 6. 결론 |
| 4. 대학도서관 사서의 정보이용자교육현황 조사 | |
| 4.1 설문결과 | |

초 록

최근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정보활용교육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국내외의 현실이다. 그러나 도서관에서 근무할 사서를 길러내는 우리나라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정보활용교육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개설된 교과는 많지 않다. 이 상황은 실제 사서들로 하여금 도서관 현장에서 정보활용교육 준비에 어려움, 교육에의 부담감, 타 업무와의 조율 등의 문제를 야기 시켜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문헌정보학 학부과정에 "정보이용자교육론"을 독립된 교과목으로 개설할 것을 제안하며, 실제적으로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교과과정 모형을 개발하고 이것을 실제 적용할 경우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수요목의 예를 제시하였다.

ABSTRACT

Recently, countries have recognized the significant to instruct the information literacy to library users so that they can positively and actively use the information. However, among the course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in the colleges of South Korea which educate the potential librarians, few courses have the objectives to make the students obtain the abilities to teach the information literacy in the future. Since this lack of appropriate educations is reflected on the fields of library, the librarians have many difficulties in preparing for and performing user instructions. As an alternative solution for this problem, this study suggests opening a course, information user instructions, in the curriculum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of the colleges in South Korea and concretely demonstrated the curricular model. Also the course syllabus displays when this course would open.

키워드: 정보이용자교육, 정보이용능력, 사서의 교육적 역할, 이용자교육 사서, 정보이용교육,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Information User Instruction,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Librarian,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Curriculum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을 축약한 것임.

** 한국도서관협회 국제팀장(ktk@korla.or.kr)

논문접수일자 2007년 6월 3일

게재확정일자 2007년 6월 10일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평생교육을 위한 핵심능력으로 정보활용능력을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공공도서관에서의 이용자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이용자교육은 모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에서 강조되어왔다. 특히 대학도서관의 경우에는 교수의 강의와 연구에 대한 지원,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의미 있는 정보원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 외에도, 이용자들 스스로 주도적으로 정보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로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은 정보전문가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에게 정보활용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 능력과 자질 또한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의 사서들을 교육시키는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 내에 이용자교육을 주된 내용으로 한 독립교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정보이용자교육을 담당하는 사서의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은 사서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도서관과 도서관 자료에 대한 자신의 이용경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획득한 전공에 대한 지식에 더하여 도서관 선배사서의 기존 교육내용을 따르고 모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는 사서는 본인의 기존 여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면서 이용자교육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업무와 교육의 이중 부담은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

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기도 하다.

사서가 도서관 현장에서 정보활용능력을 비롯하여 효과적인 이용자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서 미래의 사서가 될 학생들로 하여금 먼저 정보활용능력을 갖추고, 이후 그들이 근무하게 될 도서관과 이용자의 특성에 맞추어 잘 가르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사서가 이용자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내에서 독립된 교과과 개설 필요성에 대하여 논하며, 교과를 개설할 경우 본보기로 삼을 수 있도록 교수요목을 포함한 교과 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내용과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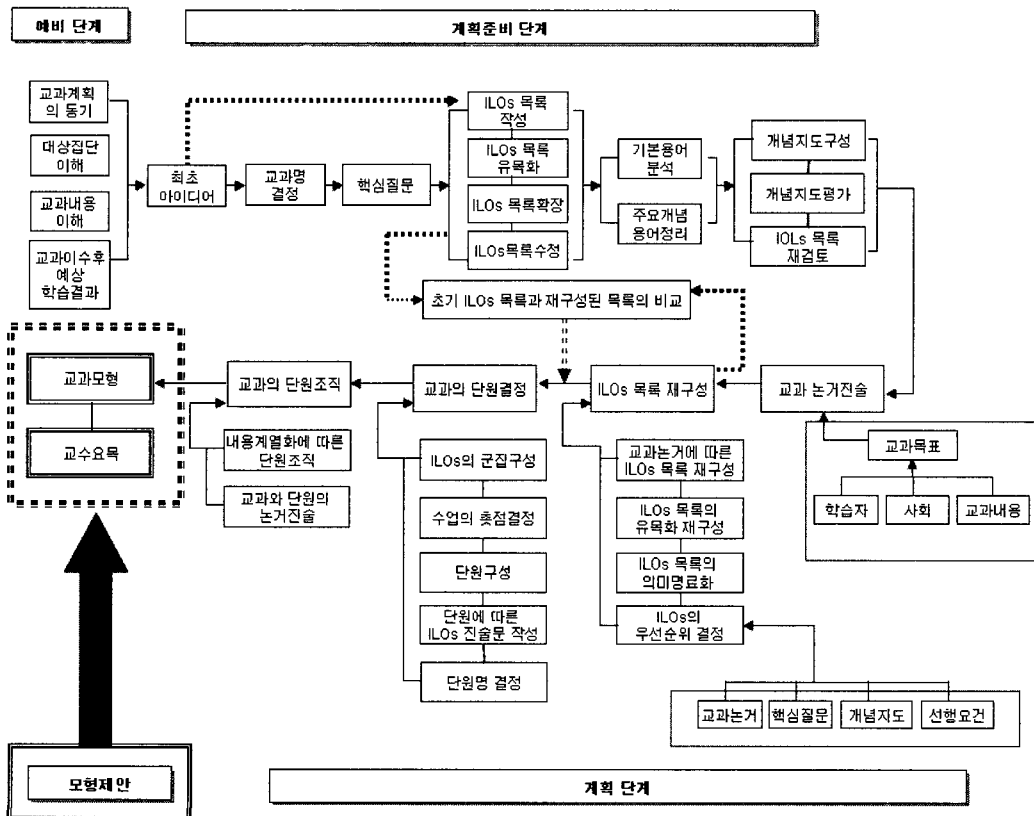
이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과와 정규교과과정을 이수한 이후, 사서로서 교육적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보이용자교육 교과를 독립교과로 개설할 것을 제안하고, 교과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대학에서의 교과과정과 교과목 개발 계획, 문헌정보학과 교육과 교과과정, 도서관에서의 이용자교육과 정보활용능력, 이용자교육 사서가 갖추어야 할 능력 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으며, 국제적인 정보활용능력 기준을 조사하고 비교·분석하였다. 둘째, 국내외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이용자교육 강좌의 현황과 교육내용을 문헌과 웹사이트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셋째, 대학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현재 이용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선행연구 결과, 현황조사, 설문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문헌정보학 정규교과과정에서 정보이용자교육 강좌의 개설을 제안하고, 교과과정과 교과목 설계의 기본 지침을 고려하여 교과모형을 설계하여 교수요목과 함께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Posner와 Rudnitsky(2006)가 *Course Design: A Guide to Curriculum Development for Teacher, 7th ed.*에서 제안한 교과과정 개발지침을 고려하여 교과모형을

설계하였다. Posner와 Rudnitsky의 교과개발 지침은 '의도한 학습성과'(intended learning outcomes: ILOs)를 중심으로 하여, 교과목에 대한 계획을 하기 이전의 준비단계로부터, 계획 이후 수업전략과 평가 단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선형적 모형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Posner와 Rudnitsky의 교과개발 지침에서 평가단계를 제외한 전과정을 예비단계, 계획준비단계, 계획단계로 구분하여 채택하였다. <그림 1>은 Posner와 Rudnitsky(2006)의 교과개발 지침을 수정적용 한 이 연구에서 교과모형의 개발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1> 교과모형 개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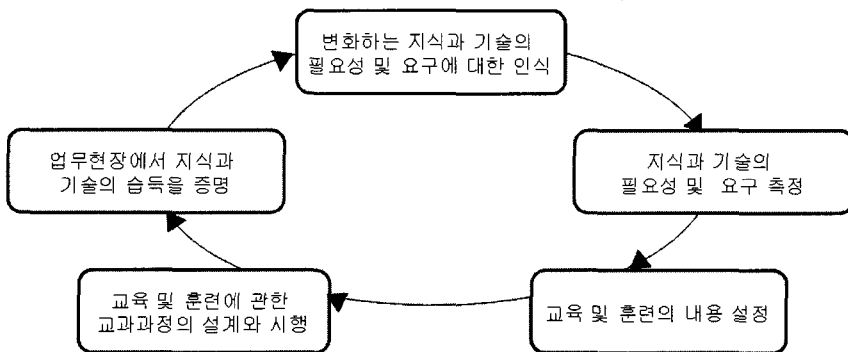
2. 이론적 배경

2.1 문헌정보학 교육과 정보이용자교육

문헌정보학의 교육목표는 문헌정보학 교육활동의 근거이며, 교육활동 평가의 기준이다. 적절하고 성취가능한 교육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교육의 목표가 교수 개개인의 임의적 해석과 실행에 맡겨지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조화로운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교육 목표의 기술은 명료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그 중요도와 실현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하고, 교육목표의 상위개념이 교육 목적에 의거하여 기술되어야 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0). 문헌정보학과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도서관 뿐 아니라 모든 환경에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고 선도할 수 있는 교과과정의 설계는 필수적이다.

Griffiths와 King(1986)은 실무에 임하는 사서들에게 요구되는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과정을 다음 <그림 2>와 같이 설명하였다.

<그림 2>에서 보면, 사서가 도서관이라는 업무현장에서 변화하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를 인식하게 되면, 교육자는 그 지식과 기술의 필요성 및 요구를 측정하여 그에 따라 교육과 훈련에 대한 내용을 정하게 된다. 그것을 토대로 하여 사서의 교육을 위한 교과과정이 설계되고 시행된다. 이렇게 새롭게 설계된 교과과정에 의해 교육을 받은 사서는 업무현장에서 자신의 지식과 기술습득을 실제로 증명하게 될 뿐 아니라 현장에서 배우게 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도 업무에 적용하며 활동하게 된다. 이는 다시 변화하는 지식과 기술의 필요성과 요구에 대한 인식을 유도해 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과정은 실무를 담당하는 사서와 교육자의 협력을 통해 계속 순환하는 과정이어서 출발점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교육 및 훈련의 궁극적인 지표는 사서가 업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 이기 때문에 업무현장에서의 요구를 출발점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Griffiths & King 1984). 이처럼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교육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갖고 있다. 실제 업무



<그림 2> 지식과 기술의 습득과정

* 출처: Griffiths, Jose-Marie and Donald W. King. 1986, 24.

현장에서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요구를 정확히 인식하고, 사서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합리적인 지식과 기술을 교육과정을 통해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제시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

정보서비스에서 교육은 정보의 전달 측면이 강조되면서 주춤하는 듯 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정보사회로의 변화를 주시하게 되면서 개인단위로 필요한 정보에 대한 인식, 평가, 선정 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그 필요성이 재인식되었다. 특히 1974년 미국정보산업협회(Information Industry Association)의 회장인 Paul Zurowski가 도서관 및 정보학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information literacy'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면서 이를 앞으로 다가올 정보사회에서 갖추어야 할 중요한 능력으로 제시하였으며(Zurowski 1974), 이후 이에 대한 논의와 논쟁은 문헌정보학계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되었으며 용어에 대한 사용은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1989년 미국도서관협회의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President Committee on Information Literacy의 최종보고서에서 'information literacy'를 정보가 필요한 때를 인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고 평가하고 이용하는데 요구되는 일련의 능력이라고 정의한 이후부터는 국내외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러한 능력에 대하여 이 용어를 수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정보활용능력과 관련하여 강숙희(2000), 강혜영(2002), 이창수와 김신영(2003), 남태우와 정재영(2003), 박명규(2004), 이현실(2004), 박남진(2005), 김순희(2006), 오의경(2006) 등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최근의 정보기술 동향과 정보자원을 알리고 지적 소유권에 관한 교육, 서지교육, 컴퓨터 이용교육 등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정보이용자교육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활용능력 교육에 대한 연구는 시의에 적절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2 정보이용자교육에서 사서의 역할

정보이용자교육에서 이용자교육 사서의 자질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적 변인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교육담당자는 정보사서 뿐만 아니라 주제전문가를 포함한 다른 분야의 사서, 교수, 외부 강사 등 다양한 직분의 사람들로 구성될 수 있다.

현재 국내 대학의 정규과목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보이용자교육에서도 역시 정보원과 그 이용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이 사서들의 전문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문헌정보학과 교수나 외부 강사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대학의 정규과목을 강의하기에는 사서의 교육수준과 기술이 미흡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신선옥 1996). 그러나 대학사회에서 사서의 교육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사서의 자질 때문이라면 이는 교육자로서의 사서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지 못한 문헌정보학 교육의 문제로 해석

하고,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서 정보이용자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뿐 아니라 교육기법을 배울 수 있는 전문적인 사서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Douglas 1999).

정보이용자교육에서 사서가 유의해야 할 사실은, 정보이용자교육이 특정 도구 혹은 특정 유형의 정보원에 대한 이용법의 교육과는 다르며, '저장방법이나, 검색도구 또는 검색매체와는 상관없이 정보를 찾아서, 평가하고 이용하기 위한 총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Baker et al 1991). 이를 위하여 정보이용자교육을 담당하는 이용자교육 사서의 능력과 자질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왔다. Bopp과 Smith(2001), Meulemans와 Brown(2001), Peacock(2001), Botts와 Emmons(2003), 미국 대학 및 연구도서관협회 교육분과의 이용자교육 사서 능력향상을 위한 특별전문위원회(Proficiencies for Instruction Librarians Task Force)(2006) 등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용자교육 사서가 갖추어야 하는 자질과 능력에 대한 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정보이용자교육을 담당하는 사서에 대해서 이용자를 위한 교육 계획을 세우고 교과과정을 설계하며, 학생을 가르치고 직접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수능력과 평가능력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활용능력, 교육정책을 개발하는 기획력, 행정력, 동료와의 파트너쉽과 리더쉽 등도 중요한 요소이며, 각 주제 분야에 대한 경험이 있다면 주제분야의 전공자에 대한 정보이용자교육에 더욱 효과적일 것을 기대할 수 있다.

2.3 선행연구

2.3.1 국내

국내 문헌정보학의 경우 다른 학문에 비해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가 비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며, 정보사회의 도래로 인한 사회적인 변화로 연구대상이 확대되고 정보매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변화됨에 따라 문헌정보학 교과목도 그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고 그 현상은 다른 학문에 비해 심하다. 또한 문헌정보학은 신학문으로서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잡기까지 문헌정보학 자체뿐만 아니라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도 수없이 진행되어 온 것이라고(노영희 2005) 할 때, 국내에서 정보이용자교육 관련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빈약하다고 하겠다. 물론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는 주제전문 사서와 정보사서의 자질과 교육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서관의 정보이용자교육에 있어서는 특히 대학도서관에서 정보이용자교육을 활성화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정보이용자교육의 방법과 유형, 이용자들이 교육받은 후의 정보활용 능력의 향상, 정보활용능력의 중요성 등과 관련되어 진행되었을 뿐 교육담당 사서와 관련한 연구는 국내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노옥순(1986)과 최은주(1988)¹⁾는 서지교육과 도서관이용교육을 담당하는 정보사서들이 자신들을 "도서관이용교육담당사서"(library instruction librarian)라고 하면서 특별한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

1) 노옥순(1986)은 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새로운 추세에 대해 이용자 교육과 관련한 미국의 경향을 "1960년대 말에 시작되어 처음에는 계속교육의 일환으로 주로 현직 참고사서들이 맡아하던 서지교육(bibliographic instruction) 후

다는 것과, 이후 북미 문헌정보학과 중 워싱턴 대학 등 몇몇 대학에서만 이 교과를 독립과정으로 개설하였다고 북미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경향과 추세를 소개하였다. 그 외에 정춘화(1995)는 미국의 정보서비스 교육에 대해 1960년대 이후 이용자교육의 독립교과 개설을 주요한 변화의 하나로 제시하고, 이에 대해 국내의 교육 상황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보이용자교육을 정보조사제공의 한 영역으로 보았을 때, 정보제공의 방법과 이용자만족도, 주제전문사서 등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도서관의 조직, 사서의 자질과 역할을 비롯한 사서직의 전문성에 대한 측면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다각도로 접근하여 행해지고 있는 데에 비해, 정보이용자교육 분야는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과 교육효과 등을 주제로 한 연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으나, 사서의 교육적 자질, 사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과과정, 도서관 조직 내에서 교육의 문제 등 정보이용자교육을 실제로 담당하게 하는 사서와 관련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2.3.2 국외

북미에서는 196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 도서관에서 정보이용자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교육담당사서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게 하기 위한 교과목을 문헌정보학과에서 개설해야할

지에 관하여 교과목과 교과과정의 개설 필요성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교과목 현황을 파악하고자 Galloway(1976), Dyer(1978), 미국 대학 및 연구도서관협회의 서지교육분과의 교육위원회(Committee on Education of the Bibliographic Instruction Section, Association of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Pastine and Seibert 1980), Larson과 Meltzer(1987), Patterson(1990), Byron(1995), Westbrook(1999) 등에 의하여 연구가 행해졌다. 이 연구들은 미국도서관협회의 승인을 받은 미국의 문헌정보학 대학원에서 “정보이용자교육”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조사한 후, 교과가 개설되어 있다면, 독립교과목인지 타교과목의 일부내용인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연구 초기에는 독립교과목의 경우보다는 타교과목의 일부로 다루는 경우가 있었으며, 개설되지도 않고 다루지도 않는 대학도 많았으나, 최근에는 독립교과목으로써 개설되고 있는 학과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교과과정에 대한 연구가 행해지는 한편에서는 Hogan(1980), Smith(1982), Powell and Creth(1986), Wilson(1987), Wittkopf(1990), Shonrock and Mulder(1991), Kilcullen(1998) 등에 의해서 정보이용자교육을 담당한 사서의 훈련과 교육에 대한 연구도 행해졌다. 도서관에서 정보이용자교육을 담당한 사서의 훈련과 교육을 주제로 한 연

은 도서관 이용교육은 점차 자신들을 도서관 이용교육담당사서(Library Instruction Librarian)로 부르는 사서들에 의해서 특별한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주장되었고, 이후 여러 문헌정보학 대학원에서 개인, 그룹, 교실을 염두에 두고 도서관이용방법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수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도서관 이용교육 과목을 개설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최은주(1988) 역시 당시에 대부분의 북미 대학원 문헌정보학과에서 별도의 정규교과과정으로 관련 교과를 편성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워싱턴 대학을 위시한 몇몇 대학에서 이 교과를 독립된 과정으로 개설하여 이론과 실제를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컴퓨터 관련 기술 뿐 아니라 교육목적과 목표의 설정, 교육 내용의 구성, 교수기술의 훈련, 평가 등 이용자 교육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면 정보이용자교육을 담당할 사서를 위한 교육과 연수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미국 대학도서관계의 이용자 교육에 대한 동향을 간략히 기술하였다.

구에서 정보이용자교육을 담당하는 사서에 대한 도서관 현장의 요구를 강조하였으며, 실제로 현장의 사서들이 그들의 업무에 대한 훈련과 학습을 문헌정보학 정규교과과정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교육과정의 개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구체적인 교육내용도 다루었다.

북미에서는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서 정보이용자교육 교과과정의 개설에 관하여 계속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다. 2004년 10월 조사에서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를 위한 교과를 포함하여 37개교에서 39개 교과가 독립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었으나, 2006년 현재에는 50교에서 83개 교과를 독립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사서교사를 위한 교과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정보이용자교육을 위한 교과만으로 43개교에서 52개 교과가 독립교과목으로 개설·운영되고 있다(ACRL May 2006). 이것은 지식정보시대의 정보활용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뿐 아니라 정보활용능력의 교육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서의 교육적 역량과 자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 국내외 정보이용자교육 교과목 개설 현황 비교²⁾

정규교육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정규교육과정의 정보이용자교육 관련 교육은 학부과정과 대학원 모두, 독립교과목과 다른 교과목과

의 연계된 과목도 모두 매우 불충분한 실정이다. 학부과정의 경우는 32개 4년제 대학 중 단지 3개 대학, 건국대학교, 공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등 3개교이며, 그중 두 개 대학은 도서관 관중의 성격이 학교도서관의 경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대학이나 학술, 연구, 특수도서관의 상황에서라면 이의 응용과 적용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원의 경우에도 전체 24개 대학원의 석사과정 중 2개 과정에서, 교육대학원 17개 과정 중 5개 과정에서만 교과목이 개설되고 있음은 정보활용능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비하여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교육방법에 대한 면에서 부족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북미의 대학원의 문헌정보학과의 경우 1970년대부터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꾸준히 계속되어 초기에는 거의 개설되지 않았었던 정보이용자교육 관련 교과목이 현재는 43개 대학원에서 52개 교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여기에 사서교사들의 정보이용자교육 교과까지 더해지면 50개 대학원 83개 교과가 현재 개설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북미의 경우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관심과 도서관 현장과 사서들의 요구와 필요성을 교육현장에서 주시하고 실제 문헌정보학 교육에 반영한 결과인 것이다.

또한 유럽의 문헌정보학계에서는 각각의 교육내용을 볼로냐 프로세스 이후 통일을 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여러 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 교육과 교과운영 경험을 공유한 결과,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서 정보활용능력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의 표준 준거를 마련하였다. 볼로

2) 국내의 교과 개설은 각 대학 문헌정보학과의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로 하였으며, 교과의 구체적인 내용 등은 요람과 강의계획서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표 1〉 국내외 정보이용자교육 과정 비교

	정규교육과정 독립교과	계속교육과정
국내	- 학부과정: 32개 대학문헌정보학과 중 3개 대학 (건국대, 공주대, 대구가톨릭대) - 일반대학원: 24개 대학원석사과정 중 2개 대학원에서 교과목 개설운영(성균관대, 연세대) - 교육대학원: 17개 대학원 과정 중 5개 과정(경기대, 계명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세대)	사서교육원(성균관대학교 한국사서교육원의 “정보소양교육특강”) 그 외는 정기적인 교육은 없음.
북미	북미문헌정보학 대학원: 56개 문헌정보대학원 중 43개 대학원에서 52개 교과 개설	미국도서관협회: 도서관교육 및 인증, 이용자서비스(서지교육) 대학 및 연구도서관협회: 교육분과 Library Instruction Round Table(LIRT) National Forum on Information Literacy IFLA: 교육연수과/전문직개발과정장학습과/정보활용능력 분과

나 프로세스의 목적을 고려할 때, 유럽의 문헌정보학 교육은 2010년을 기점으로 동일한 교과과정과 교육내용으로 통합될 것이며, 여기서 정보활용능력의 교육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리라는 것이 예상된다.

계속교육의 측면에서도 많은 계속교육 기관이 국내에 존재하고 있으나, 이용자 교육을 전문적인 주제로 정해 놓고 다루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2005년 국립중앙도서관의 사서능력개발과에 “스피치 및 이용자교육과정”이 한때 개설되었으나, 다른 과정들과의 일부 내용 중복을 이유로 폐지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학회의 발표 혹은 한국학술연구정보원 등에서 정보활용능력을 주제로 학술발표를 하는 경우가 부정기적으로 있기는 하나, 이것은 그야말로 부정기적인 것이므로, 정기적인 교육의 기회는 성균관대학교 부설 한국사서교육원의 “정보소양특강”이 유일한 것일 뿐이다. 이것은 미국도서관협회의 계속교육, 대학 및 연구도서관협회의 교육분과, 도서관교육원탁회의(LIRT) 또는 국제도서관협회 연맹의 “정보활용능력”분과 등과 같은 정기적이고 적극적인

계속교육 활동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정보이용자들의 정보활용능력이 향상되기 위해 서라도 개선과 발전이 필요하다.

4. 대학도서관 사서의 정보이용자 교육현황 조사

대학도서관 사서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본 설문조사는 도서관이용자에게 정보이용자교육을 실제로 행하는 사서들의 가르치는 역할에 대한 현황과 문헌정보학 정규교육에서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 사서들이 실제로 이용자들을 교육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능력과 자질, 정보이용자교육을 받은 경험과 본인의 교수경험의 관련성, 사서의 교육 필요성, 사서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영향, 교육을 담당한 사서에게 요구되는 자질 등을 조사함으로써, 사서의 교육적 역할 수행을 위한 문헌정보학 정규교육에서의 정보이용자교육의 전공교과목의 필요성 여부를 파악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국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사립대학도서관협의회에 소속된 회원도서관,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소속의 대학도서관 의학분관 등 총 219개 도서관(국공립: 52개관, 사립 112개관, 의학분관 55개관)의 정보이용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4.1 설문결과

설문응답자는 총 186명으로, 응답자 중 남자의 비율이 35.5%(66명), 여자가 64.5%(120명)로 여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연령은 40대(44.1% 82명), 30대(42.5%, 79명), 50대 이상(7%, 13명), 20대(6.5% 1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 경력은 16-20년(30.6%, 57명), 11-15년(23.7%, 44명), 21년 이상(16.1% 30명), 1-5년(16.1%, 30명), 6-10년(13.4%, 25명) 순이었으며, 직위는 일반사서(49.5%, 92명), 중간관리자(38.7%, 72명), 총괄책임자(9.1%, 17명)의 순이었다. 응답자의 57%(106명)가 2급

정사서이며, 약 38%(71명)가 1급 정사서였다. 또한 응답자의 33.3%(62명)가 문헌정보학 석사학위를, 4.3%(8명)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문헌정보학은 아니지만 다른 전공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는 응답자도 25명이나 있었으며, 그 중에는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도 2명이 포함되어 있다.

4.1.1 도서관의 정보이용자교육과 사서의 업무 현황

응답자 186명 중 소속도서관이 이용자 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8명으로 9.7%였다. 이들은 이용자 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개별 18개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었다.

정보이용자교육을 하는 도서관의 경우 교육 전담사서의 유무, 업무의 일부로 교육을 하고 있는 사서의 수, 교육에 대한 업무의 분담, 교육의 유형 등을 질문하였다. 한 명의 사서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여러 명의 사서가 교육업무를 상황에 따라 분담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대부분의 도서관에서 1-2명의

〈표 2〉 정보이용자교육을 하는 도서관의 경우

항 목	내 용	응답수(명)	비율(%)
정보이용자교육 전담사서	전담사서가 있는 경우	113	67.3
	전담사서가 없는 경우	55	32.7
	합계	168	100.0
정보이용자교육 사서인원	1명	71	42.3
	2명	41	24.4
	3명 이상(4명 이상 8, 최대 11명인 곳도 있음)	27	16.1
	기타	29	17.3
	합계	168	100.1
업무분담	1명의 사서가 전담하여 한다.	67	39.9
	여러명의 사서가 동일내용 교육	20	11.9
	여러명의 사서가 난이도와 교육내용에 따라 교육	56	33.3
	기타	25	14.9
	합계	168	100.0

사서가 교육을 분담하고 있었다. 3명 이상의 사서가 분담하는 경우도 16.1%에 이르며, 또한 이 중에는 최대 11명의 사서가 정보이용자교육을 하고 있다고 대답한 도서관도 있어 열람업무 혹은 대부분의 도서관 사서가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사서는 교육을 실제로 하지 않고 단지 교육신청만을 받고 DB대행사의 직원이 해외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검색법을 가르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이 경우 교육에 대한 어려움을 질문했던 다른 설문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가 자신은 직접 교육을 담당하지 않으므로 별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다는 대답을 하는 경우도 유사하게 발생하였다.

교육과 관련하여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 186명중 35.5%(66명)는 교육내용준비, 24.2%(45명)는 업무과중, 16.1%(30명)는 강의에 대한 심적 부담으로 대답하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교육을 했을 때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없다는 점, 학과 교수와의 강의시간 조율 등의 문제 등을 들었다. 여기서 실제 교육내용준비와 업무과중은 매우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교육내용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이 맡고 있는 주업무 이외에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육내용 준비와 주업무 처리에서의 시간적 한계가 잔업과 야근으로까지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이 설문의 문항에 대해 두 개의 응답을 동시에 선택한 응답자가 매우 많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려고 노력하는 도서관의 경우에 학과 혹은 수업담당 교수와의 협력이 있어서 수업시

간 혹은 학과의 공강시간 등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 도서관에서 의욕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였으나 학생들의 호응부족이나 무관심에 부딪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기타 응답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대한 요구와 홍보방법에 대한 문제 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4.1.2 사서의 교과목 수강과 교과목 개설

사서들의 문헌정보학 정규교육과 계속교육에서 “정보이용자교육”과 관련 교과목의 수강 경험과 과목유형, 실무에서 정보이용자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교과목이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총 186명의 응답자 중 문헌정보학 정규교육과 계속교육에서 교육받은 사서는 각각 69명, 93명으로 교육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118명, 두 과정 모두에서 교육을 받은 응답자의 수도 44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반면 두 과정 모두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응답자의 수도 6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36.6%에 달했다. 이 중 문헌정보학 정규교육에서 독립교과로 교육받은 사서의 수는 전체 응답자 중 단 8명으로, 문헌정보학 정규교육에서 교육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11.6%였으며, 전체 응답자 186명중 4.3%에 불과하였다.

사서가 정보이용자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자질과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문헌정보학 정규교육에서는 전체의 89.8%인 167명의 응답자가, 계속교육에서는 전체 95.7%인 178명의 응답자가 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문헌정보학 정규교육과 계속교육에서의 교과유형에 대한 설문에서는, 문헌정보학 정규교

육에서는 독립된 교과목으로 하는 것을 1순위로 응답하였으며, 정보조사제공 영역 교과목의 강의내용 중 일부로 이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응답한 응답자가 2순위였다. 특강과 기타 응답에는 1회성의 특강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개설에 대한 요구와, 한 학기의 독립교과목은 아닐지라도 관련된 교과목의 일부로 포함시키는 것은 불충분하므로 수회에 걸쳐 일정기간의 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대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계속교육에서는 사서들의 계속교육을 꾸준히 담당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서연수교육에 대해 69.1%의 응답자가 1순위의 응답을 하였다. 그 외에 대학도서관협의회 등의 워크샵, 학회등의 발표 등의 순이었으나, 일회성 교육보다는 어느 정도 지속적이나 그리 장기간의 시간이 요구되지 않는 단기 연수의 형태와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교육내용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덧붙여져 있었다.

4.1.3 정보이용자교육 담당 사서의 자질

이용자 교육을 담당할 사서의 자질에 대해서 앞의 선행연구에서 Shonrock and Mulder(1991), Meulemans and Brown(2001), Bopp(2001) 등이 제시한 자질과 능력, 대학 및 연구도서관 협회(2006)에서 제시한 이용자교육을 담당하는 사서의 자질로서 요구되는 사항들을 토대로 하여 실제 정보이용자교육을 하고 있는 사서들과의 사전설문조사를 통해 15개의 자질을 추출한 후, 실제 설문에서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교육을 담당하는 사서들은 자신이 스스로 기본적으로 정보활용능력을 갖추어야할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으며, 그외에 강의와 교수법에 관하여 매우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보활용능력, 커뮤니케이션 기술, 주제분야의 전문지식, 교육자료개발, 홍보능력, 교과과정 설계의 순으로 자질과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대학도서관의 자료실의 유형과 성격

〈표 3〉 정보이용자교육 담당 사서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

순위	자 질	평 균	표준편차
1	정보활용능력	4.48	.651
2	강의 및 교수법	4.46	.561
3	커뮤니케이션기술	4.45	.615
4	주제분야 전문지식	4.41	.654
5	교육자료개발	4.37	.604
6	홍보능력	4.32	.683
7	교과과정설계	4.12	.711
8	컴퓨터활용능력	3.99	.732
9	교육결과평가	3.92	.712
10	학습능력인지	3.89	.720
11	리더쉽	3.85	.768
12	학습결과평가	3.78	.778
13	외국어능력	3.70	.717
14	통계분석	3.52	.751
15	행정력	3.41	.809

이 점차 주제별 자료실로 변화되어감에 따라 각 전공별 전문지식과 전공별 특정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제분야의 전문지식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파악되어 지며, 앞의 선행 질문에서 정보이용자교육에서 어려운 점을 강의에 대한 부담감을 지적한 사서들의 경우는 강의와 교수법에서 그렇다와 매우그렇다를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 제시된 다른 자질과 능력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상위권에 제시된 자질과 능력들이 실제 현장에서 정보이용자교육을 하는 사서들이 핵심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4.2 설문조사 결과요약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대다수의 사서들이 정보이용자교육에 대한 전문교육 없이 본인들의 문헌정보학에 대한 지식과 도서관 이용경험들을 토대로 하여 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가르친다는 부담감이나, 교수자료에 대한 준비, 단순히 도서관이용법과 데이터베이스 검색법 뿐 아니라, 이용자가 스스로 자기 학습이 가능한 정보활용능력 수준의 교육까지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헌정보학 정규교육과 계속교육에서 모두 정보이용자교육을 받은 사서들의 교육의 실무에의 효율에 대한 응답은 두 가지 유형의 교육을 모두 받은 사서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들 스스로 교육이 현장에 실제적으로 적용했을 때 교육내용이 그만큼의 실효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

다. 이에 반해 정규교육에서 교육받지 않았으나 계속교육에서 한번이라도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사서 본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게 되는 것으로 직접적인 해결책은 아닐지라도 교육을 받았다는 것에 매우 큰 의미와 가치를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정보이용자교육담당 사서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하여 주어지 한에 대하여 정보활용능력, 강의 및 교수법, 커뮤니케이션 기술, 주제분야의 전문지식, 교육자료의 개발, 홍보능력, 교과과정설계 등의 순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넷째, 아직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정보이용자교육은 전반적으로는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다. 도서관의 정보이용자교육이 매우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도서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수준은 정보활용능력의 교육이라고 할 수준은 아니며, 정보검색과 데이터베이스 이용법 정도이다. 그 역시도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도서관보다 그렇지 못한 도서관이 더 많았다.

이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도서관에서 정보활용능력을 가르치는 수준으로 교육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용자를 가르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에서 이를 적절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으로 사서들을 위한 재교육이나 계속교육의 기회도 충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문헌정보학 정규교육에서조차 사서들이 요구하는 자질을 갖추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문헌정보학과의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교과를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기존

에 교육받은 경험이 있는 교육담당사서들의 과반수 이상이 문헌정보학 정규교과과정에서 독립교과로 이 과목을 개설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들은 도서관현장에서 정보이용자교육을 실제로 하고, 교육업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교과와 일부과목으로부터는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독립교과로 이 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서들이 스스로 교육을 담당하는 사서에게 필요한 자질로 정보활용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용자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사서부터 이 능력을 정확하게 갖추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후 이용자에게 가르칠 수 있는 직접적인 교수 능력과, 교육자료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준비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용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에 대한 방법에도 깊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평가의 필요성에도 사서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므로, 이러한 내용은 문헌정보학 정규교육에서 사서의 교육적 자질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를 신설하는 경우, 이 교과의 주요한 내용에서 우선순위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5. 교과 모형 개발

5.1 정보이용자교육 교과모형 개발을 위한 예비단계

문헌정보학의 교과과정은 변화하는 지식정

보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변경되어 왔으며, 문헌정보학의 교육은 새로운 시대에 알맞은 교육과정의 개발을 통하여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실용성과 시대의 변화와 동향을 반영하여왔다. 도서관에서의 정보이용자교육을 위한 사서의 교육적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교과목을 문헌정보학과에 반드시 개설하고 정보활용능력에 대하여 사서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는 것도 바로 이러한 뜻과 관련되어 있다. 도서관에서 정보이용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서들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교육과 변화하는 기술, 가르쳐야 하는 교육내용에 대한 준비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최근 주제자료실로의 도서관 조직의 변화는 주제와 전공분야별 교육까지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교육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서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사서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합리적인 지식과 기술에 대해 문헌정보학 교육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계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정보이용자교육의 독립 교과목으로서의 개설 필요성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5.2 정보이용자교육 교과모형 개발의 계획준비단계

5.2.1 최초 아이디어 생성

교과모형 개발을 계획하기 위한 전 단계인 준비단계의 가장 첫 번째 할 일은 "최초 아이디

어”(initial ideas)를 정리하는 일이다. 최초 아이디어는 어떤 형태이든 상관이 없으므로 교과 내용, 내용영역, 구체적인 도서명을 적어 놓을 수도 있으며, 기타 여러 가지 자원들을 열거해 놓을 수도 있다. 그 과목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아이디어 목록에 포함시켜야 한다. 최초의 아이디어는 단순히 항목을 열거한 리스트 일 수도 있으며, 웹(web), 혹은 거미줄 지도(spider map)로 할 수 있으며, 비교대조표, 인과관계의 상호작용지도가 될 수도 있다.

이 교과를 위한 최초의 아이디어는, 선행연구, 설문의 응답, 북미문헌정보학 대학원의 정보이용자교육과정의 교육내용 등을 토대로 도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5.2.2 교과명의 결정 : 정보이용자교육 (Information User Instruction)

두 번째 단계는 교과명을 결정하는 것이다. 아직 완전하게 구체화되지 않은 아이디어들에 대하여 상호일관성을 살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교과명을 결정하는 일이다. 교과명의 결정을 통해 부분과 전체간의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교과의 초점을 정하는 주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다.

이 교과와 명칭을 결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교과목을 살펴보면, 정규교과과정에서 현재 개설되어 있는 국내 3개 대학의 학부과정과 대학원과정에서 모두 통일되지 않은 용어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은 북미 교과과정 현황 조사에서

<표 4> 교과모형 개발을 위한 최초 아이디어 목록

정보활용능력의 정의
정보활용능력 기준
정보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필요한 정보를 결정한다.
정보의 탐색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정보에 효과적, 효율적으로 접근한다.
정보와 정보원을 분석적으로 평가하고 자신의 지식과 가치에 새로운 정보를 통합시킨다.
정보를 조직하고, 통합, 관리하며, 전달한다.
정보이용과 관련 경제적, 법적, 사회적 문제를 이해하고, 윤리적 합법적으로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함으로써 정보윤리를 준수한다.
정보활용능력 교육의 미래와 사서의 교육적 역할
정보활용능력 교육
강의 및 교수법, 프리젠테이션 능력
교육결과 평가
교육자료 개발
프로그램의 계획과 교과과정설계
이용자의 요구 분석과 평가
학습이론
리더쉽
웹기반의 정보이용자교육
주제분야의 전문지식
커뮤니케이션 기술, 행정력, 리더쉽, 홍보능력

도 유사하게 밝혀졌다. 북미 대학원의 교과과정에서 정보이용교육과 관련된 과목명으로 “정보이용자교육”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과목이 처음 개설되었을 시기에는 서지교육이라는 과목명을 대부분 사용하였으나, 최근에는 도서관뿐만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규모가 폭넓어졌으므로 단순한 “서지”이용법에 대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이용자가 정보활용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한다는 목적으로 “이용자교육”이나 “정보활용능력 교육” 등의 명칭으로 변화되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도 정보리터러시, 정보활용지도론, 도서관이용교육, 정보문해론 등 각각 다른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과목의 성격이 이용자에 대한 교육,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본 기관으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이용교육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용자가 전반적인 정보활용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사서로 하여금 교육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므로 이러한 성격을 잘 표출할 수 있는 명칭을 선별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정규교과과정으로 이 교과목을 개설할 것을 제안하면서 “정보이용자교육”

(Information User Instruction)이란 명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곳을 이용하는 모든 정보이용자들에게 정보활용능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지에 대한 교수내용과 방법,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 교과목에서 다룬다는 것을 의미한다.

5.2.3 핵심 질문

핵심 질문은 그 교과목의 초점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특정 교과에 얼마나 많은 수의 중심 질문이 생겨날 수 있는가는 그 교과목의 성격에 달려 있다. 교과에 따라서는 학생들이 그 교과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될 경우 정확하게 대답할 것을 의도하는 내용을 핵심질문으로 구성하기도 한다.

5.2.4 의도한 학습성과 목록의 작성과 유목화

의도한 학습성과 목록은 교과계획자가 의도한 것으로, 학습자가 교과를 이수한 후 갖기를 기대하는 사실, 아이디어, 이론 등으로 해당 교과에서 학습해야 할 바를 의미하며, 학습목표를 밝히는 진술문을 그 일차적인 산물로 한다. 이

〈표 5〉 교과모형 개발을 위한 핵심질문

- ▶ 정보활용능력이란 무엇인가?
- ▶ 정보활용능력과 도서관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 ▶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정보활용능력 교육에 대하여 알고 있는가?
- ▶ 이용자교육 사서가 정보활용능력 교육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할 능력은 무엇인가?
- ▶ 도서관에서 정보활용능력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 ▶ 실제로 도서관에서 정보활용능력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
- ▶ 평생학습과 정보활용능력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 ▶ 사서는 정보활용능력 교육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
- ▶ 도서관에서 정보활용능력 교육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며, 이것은 도서관관 이용자, 사서, 그리고 모기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교과에서는, 최초 아이디어 목록으로부터 다음 <표 6>과 같은 목록을 작성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의도한 학습성과를 기능적 학습성과와 비기능적 학습성으로 구분하고 유목화한 것이 <표 7>이다. 일반적으로 기능적 학습성과는 학습자가 교과를 학습한 후 갖게 되는 문제해결, 해석, 분석, 응용기능, 정신능력 등을 의미하며, 비기능 학습성과는 가치, 감정, 태도, 경향성을 의미한다.

5.2.5 전문용어와 개념의 정리

전문용어의 정리와 개념분석 단계에서는

의도한 학습성과에 포함된 전문용어들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학생들에게 이해시키고 싶은 주요 개념들의 대표적인 용어리스트를 작성한다.

이 교과에서 알아야할 주요 용어와 개념들을 제시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5.2.6 개념지도의 구성과 평가

위의 용어와 개념을 표시하는 단어들의 목록을 만들어 보고, 교과에서 다룬 개념들간의 상호관련성을 단어의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3> 개념지도이다.

<표 6> 교과모형 개발을 위한 의도한 학습성과 목록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활용능력에 대해서 알고, 스스로 정보활용능력을 갖춘다. ▶ 정보활용능력과 관련된 개념과 기준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 ▶ 도서관의 이용자들이 정보활용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 도서관의 관중별 특성과 이용자의 요구와 특성을 파악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 도서관에서 이용자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동료, 교직원 등과 협력·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도서관의 정보활용능력 교육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에서의 사서의 역할에 대하여 인식한다.
--

<표 7> 교과모형 개발을 위한 의도한 학습성과의 분류

구 분	내 용
기능적 학습성과	정보활용능력에 대해서 알고, 학습자 스스로 정보활용능력을 갖춘다. 정보활용능력과 관련된 개념과 기준에 대한 지식을 갖는다. 정보활용능력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도서관의 관중과 이용자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 도서관에서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능력.
비기능적 학습성과	학습자 스스로 정보활용능력을 갖춘다. 도서관의 정보활용능력 교육, 교육프로그램 개발에서의 사서의 역할에 대해서 인식한다. 동료, 교직원 등과 협력

<표 8> 교과모형 개발을 위한 전문용어와 개념의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수-학습설계 ▶ 교수법 ▶ 교육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활용능력 ▶ 정보활용능력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운영 ▶ 학습이론 ▶ 협력
---	---	---

〈표 9〉 교과모형개발을 위한 의도한 학습성과 목록의 재구성

범주 1	범주 2	범주 3
1. 정보이용자교육과 정보활용능력	도서관의 정보이용자교육	이용자교육의 역사 이용자교육의 유형
	정보활용능력	정의 기준과 모형 주요 이슈
2. 학습이론과 교수법	교수-학습	학습이론: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교수법과 프리젠테이션	교육자료의 개발 교수매체의 활용 프리젠테이션 기술 커뮤니케이션 기술
3. 교육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	교육프로그램의 설계	교육계획 교과과정설계
	관중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계획	관중에 다른 정보이용자 교육 도서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웹기반의 교육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활동	모기관 내 구성원간의 협력 홍보

과를 토대로 교과와 단원을 결정하고 체계적으로 조직한다. 이 단계에서는 각 단원에서 학습해야 할 바에 대한 분명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각 단원에서, 나아가 전체 교과에서 학습해야 할 바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단원은 실제 교과를 운영할 때 진행할 순서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조직하도록 한다.

정보이용자교육 교과와 단원은 앞의 의도한 학습성과 목록을 재구성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모두 10개의 주제로 단원을 구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10개의 단원은, 단원 1: 도서관정보 이용자교육 개관, 단원 2: 정보활용능력과 관련된 주요 용어와 주요한 이슈들, 단원 3: 고등 교육기관을 위한 정보활용능력 기준, 단원 4: 교수-학습이론, 단원 5: 교수법과 프리젠테이션 기술, 단원 6: 정보이용자교육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 교육자료 준비, 단원 7: 교육프로

그램의 홍보와 협력, 단원 8: 관중별 도서관에서의 교육과 웹기반의 교육, 단원 9: 이용자의 요구분석과 평가, 단원 10: 정보활용능력 교육의 미래와 사서의 교육적 역할 등으로 하였다.

5.3.4 단원의 논거

이렇게 구성된 단원에 대하여는 각각 단원에 대한 학습의 근거와 내용을 밝히는 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보이용자교육 교과와 단원의 논거는 다음 〈표 10〉과 같다.

5.4 정보이용자교육 교과모형 제안

5.4.1 교육목표

“정보이용자교육”은 사서이며 동시에 정보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활용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대학을 졸업한 이

<표 10> 정보이용자교육 교과목의 단원과 단원에 따른 논거

단원	단원 주제	단원의 논거
1	도서관정보이용자교육 개관	이 과목을 수강하게 된 학생들에게 이용자교육의 유형과 역사적 발전을 중심으로 도서관에서의 정보이용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준다. 서지교육에서, 정보이용자교육으로 까지 발전하는데 있어서의 과학기술의 발전과 이것으로 인한 도서관 환경의 디지털환경으로의 변화와 가상도서관에서의 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이용자교육의 역사에 대하여 학습함으로써, 정보이용자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한다.
2	정보활용능력과 관련된 주요 용어와 주요한 이슈들	정보활용능력의 필요성과 중요성, 정보활용능력과 관련된 여러 조직과 유관기관들에 대하여 정보를 갖는다. 정보활용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일반적으로 동의된 사실이다. 그러나 이 용어는 매우 최근에 등장한 용어이며 국내에서는 동일한 영어단어가 여러 학문분야에서 다양하게 해석되어 사용되고 있다. 용어에 대하여 그 용어가 의미하는 정확한 개념과 정의를 아는 것은 정보이용자교육을 시키는 사자에게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알아야한다는 면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먼저 정보활용능력의 용어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한다. 정보활용능력과 정보이용자교육과 관련한 국제적인 기관들의 협력과 활동,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갖추으로써 실제로 교육을 하게 될 때 도움을 얻을 수 있다.
3	고등교육기관을 위한 정보활용능력 기준	대학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고 평생학습의 토대를 구축하게 하도록 지원하는 곳으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오늘날의 사회에서 이러한 수행능력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보활용능력에 대한 기준과 모형들의 공통적인 논지는 정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올바른 정보의 탐색 전략의 수립, 필요한 정보에 효과적·효율적 접근, 수집된 정보와 정보원의 분석·평가, 기준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통합하며, 이러한 정보를 잘 조직 관리할 뿐 아니라 정보의 전달과 이용에 있어서 합법적이며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것은 학생들의 과제해결이나, 연구프로젝트의 수행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또한 학습자가 향후 사서가 되어서 이용자들에게 이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하기 위해서는 학습자 먼저 정보활용능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다.
4	교수-학습이론	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정보탐색과정, 정보추구행동의 이해, 능동적 학습, 비판적 사고, 행동주의, 인지이론, 구성주의 등의 학습이론에 대해 이해하도록 한다. 정보활용능력을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 이용자들은 학습자가 서는 교사, 즉 강의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자가 어떻게 "학습"이라는 과정을 행하는지를 아는 것은 교사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학습이론은 심리학 적인 관점에서는 행동주의, 인지이론, 인지이론, 구성주의,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심리학적 관점, 철학적인 관점 등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내용은 학습자의 학습행동과 동기부여를 위한 이해를 위해서 정보이용자교육의 전체 내용속에 기본적으로 꼭 포함되어야할 내용이다.
5	교수법과 프리젠테이션 기술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교육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교수법의 이론과 실제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프리젠테이션 기술과 수업운영에 대하여 다룬다. 정보이용자교육을 담당하는 사서는 교수가 아니다. 따라서 특별히 강의법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훈련과 노력, 그리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 정보를 잘 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프리젠테이션 방법 등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대부분의 복미의 문헌정보학과의 정보이용자교육 교과목에서는 교수법과 프리젠테이션 기술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 경우 교과목 담당 강사외에 외부에서 초빙 강사가 특강의 형식으로 참여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4장의 대학도서관 사서들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도 강의에 대한 부담감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여기서는 기본적인 교수법과, 수업운영에 대하여 다음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사전 경험을 갖도록 한다.
6	정보이용자교육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 교육자료	교수 학습의 수업설계 모형을 토대로 한 효과적인 정보이용자교육을 위한 교수전략을 수립하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교육자료 개발에 대하여 학습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로 이용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때, 프로그램의 설계와 교육자료의 준비에도 참여하게 된다. 교과과정의 분석대상이 되었던 복미 교육과정에서는 대부분의 교과목에서 정보이용자교육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으며, 국내 대학도서관 사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역시 정보이용자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교육자료의 준비에 대한 문제가 이용교육에 있어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해결을 바라는 부분이었다.

7	교육프로그램의 홍보와 협력	교육프로그램의 홍보방안과 기관내 다른 구성원과의 적극적인 협력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잘 준비된 교육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이것을 기관내 이용자에게 널리 알리는 일도 중요한 일이다. 교육프로그램의 활발한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기관내의 직원들, 기관내 다른 부서의 직원들, 교수진들과의 협력으로 기관내 이용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좋은 교육프로그램이 도서관의 서비스를 홍보하는 역할을 해 주기도 한다. 정보이용자교육을 발전시키고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기관들간의 협력방안들을 다룬다. 계속교육, 여러 협회의 공동연구 등에 대해서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8	관중별 도서관에서의 교육과 웹기반의 교육	관중과 이용자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이용자 교육에 대하여 학습한다. 또한 원격지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웹기반의 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를 위한 교수법과 교수자료를 준비한다. 도서관에서의 정보이용자교육으로 시작하여 최근 정보이용자교육으로 발전한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한 유형에 대하여 알아본다. 학교, 대학,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관중의 도서관과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정보이용자교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함으로써, 이후 실제로 이용교육프로그램의 계획과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도록 한다.
9	이용자의 요구 분석과 평가	이용자의 학습요구와 정보요구에 대한 분석, 정보교육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에 대하여 학습한다. 요구분석은 이용자의 학습요구분석,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요구분석, 교육받고자 하는 요구에 대한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평가는 정보이용자교육을 받은 이용자에 대한 교육결과를 평가하여 이용자에 대한 교육효과를 알아볼 수 있으며,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이용자들의 효율성 혹은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교육프로그램의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10	정보활용능력 교육의 미래와 사서의 교육적 역할	정보활용능력은 과거 서지교육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전하여 왔던 것으로 계속하여 중요한 능력으로 발전하고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활용능력 교육의 미래에서 사서의 교육적 역할에서, 이용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도서관내의 직원훈련 등 정보이용자교육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계획과 준비에 대해 다룬다.

후 자신이 근무하게 될 관중의 도서관 이용자에게 적합한 정보이용교육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이용자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자원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교육목표로 한다.

5.4.2 정보이용자교육 교과의 학습시기와 교과유형

문헌정보학의 학문영역에서 이 교과는, 정보조사제공의 한 영역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으나, 전체 문헌정보학의 학과목의 계열화 등을 구분하는 경우, 이 과목에 대해서는 문헌정보학 입문과 마찬가지로 일반 영역에 두는 것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문헌정보학 입문이 개론적 성격으로 문헌정보학을 처음 접한 1학년들에게 학문에 대한 안내의 성격을 갖는다면, 이 과목은 문헌정보학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을

종합하여, 문헌정보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보전문가로서 정보의 종합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과목은 가능하면 문헌정보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학습한 후에 수강할 수 있도록 대학의 3-4학년 과목으로 개설하는 것이, 실제로 대학 졸업 후 현직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도 직업과 연계되어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용자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것은 정보활용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자 스스로 정보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보원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정보원을 선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이 과목을 수강하기 이전에 정보원과 정보조사제공론 관련 과목을 선수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정보원에 대해 이용자에게 정확하게 안내하고,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둘 것도

고려사항 중의 하나로 제안한다.

5.4.3 교수요목

일반적으로 한 학기가 16주이다. 정보이용자교육 교과목의 강의는 다음 교수요목 예시에서 제시한 순서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5.5 모형의 활용과 평가

이상과 같이 정보이용자교육 교과 모형을 개발하여 제안하였다. 이 모형에 대해서는 4년제 대학의 정규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에서 전공 과목으로 제안하였으므로 모형의 구성에 있어서 참고자료와 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과

평가항목 등은 담당교수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모형은 실제로 문헌정보학과를 졸업하고 도서관에서 정보이용자교육을 담당하는 사서로 일하게 되었을 때 과목을 수강한 문헌정보학 전공생이라면 이후 정보이용자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사서들이 경험하는 강의와 교육준비에 대한 동일한 어려움에는 당면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계속되는 이용자의 요구와 변화하는 정보환경은 단지 대학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제시할 것이므로, 이것은 계속교육의 방안으로 풀어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표 11〉 정보이용자교육 교수요목

교과명	정보이용자교육(Information User Instruction)
수강대상	문헌정보학과 3-4학년
선수과목	정보조사제공론
강의개요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이용자들이 스스로 필요한 자료와 정보 및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보기술과 정보활용능력을 습득하도록 가르치는 것으로 정보전문가로서의 사서들의 적극적인 서비스이다. 이 과목은 도서관과 정보센터에서 이용자를 교육하는데에 필요한 이론과 실재를 가르친다. 오리엔테이션, 서지교육으로부터, 다양한 교육방법과 효과적인 교육을 위한 여러 수업방식을 소개하며, 교육프로그램의 설계와 홍보, 웹 기반의 교육과 웹 기반의 학습 모듈 설계에 대해 평가하는 기회도 가지게 될 것이다.
수업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보활용능력의 다양한 측면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논의한다. 2. 정보활용능력을 지원하는 조직과 정보원에 대하여 학습한다. 3. 교육계획을 세워보고 실제로 실행한다. 4. 학습이론과 교수법을 배운다. 5. 정보활용능력 교육에 관한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정보활용능력의 최신 이슈, 경향 및 정책 등을 살핀다. 6. 웹 기반의 학습 모듈을 설계하고 평가한다.
교재 및 참고자료	<p>박준식, 1998. 정보서비스론. 대구: 계명대학교 출판부.</p> <p>정진식의, 2002. 디지털도서관정보서비스. 서울: 한국도서관협회.</p> <p>시스, 주디스 A. 지음. 2005. 눈에 띄는 도서관 마케팅. 이우정, 박수희, 김태훈 옮김. 서울: 이체.</p> <p>이병기, 2006. 정보활용교육론. 서울: 조은글터.</p> <p>윌터 덕, 루 캐리, 제임스 캐리. 2003. 체제적 교수설계. 최수영, 백영균, 설양환 공역. 서울: 아카 데미프레스.</p> <p>한상완 외. 2005.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정보활용. 서울: 한국도서관협회.</p> <p>Bopp, Richard E. and Smith, Linda C. 2001. <i>Reference and information services: an introduction</i>. Englewood, Colo.: Libraries Unlimited.</p> <p>Burkhardt, MacDonald, and Rathemacher. 2005. <i>Creating a Comprehensive nformation Literacy Plan</i>, New York, NY: Neal-Schuman Publishers, Inc.</p> <p>Eisenberg, Lowe, and Spitzer. 2004. <i>Information Literacy: Essential Skills for the Information Age</i>. 2nd ed. Westport, Conn, Libraries Unlimited.</p>

	Grassin & Kaplowitz. 2001. <i>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i> . New York, NY: Neal-Schuman Publishers, Inc. Grassin & Kaplowitz. 2005. <i>Learning to Lead and Manage 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i> . New York, NY: Neal-Schuman Publishers, Inc. Heinrich R. et al. 2002. <i>교육공학과 교수대체, 설양환 외 공역</i> . 서울: 피어슨 에듀케이션 코리아. Jacobson & Lijuan Xu. 2004. <i>Motivating Students in Information Literacy Classes</i> . New York, NY: Neal-Schuman Publishers, Inc. 기타 참고자료
강의방식	강의, 발표, 토론, 실습, 견학
주간 수업 계획	
주차	단 원
1	강의 개요, 도서관의 정보이용자교육 개관: 서지교육, 도서관의 이용자교육 등 다양한 교육유형, 교육의 역사
2	정보활용능력의 개념과 주요 용어, 이슈: information literacy, computer literacy, new liberal arts 등
3	각국의 고등교육 정보활용능력 기준: 미국, 영국, 호주의 기준과 IFLA 지침 등
4	고등교육 정보활용능력 기준의 활용: 정보요구의 정의, 정보에 대한 접근과 탐색, 정보의 평가,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정보이용 등을 학습자가 습득할 수 있도록 함.
5	교수-학습이론: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등
6	교수법과 프리젠테이션 기술
7	도서관의 정보이용자교육 참여: 실제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이용자교육프로그램의 현황을 파악하고 참여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방문하여 도서관의 견학프로그램과 교육프로그램에 참여
8	*
9	정보이용자 교육프로그램(1): 교육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 교육자료
10	정보이용자 교육프로그램(2): 홍보와 협력, 커뮤니케이션
11	관중별 도서관에서의 교육과 웹기반의 교육프로그램
12	이용자의 요구분석과 평가
13	정보이용자교육의 미래와 사서의 교육적 역할
14	정보이용자교육 프리젠테이션 실습(1)
15	정보이용자교육 프리젠테이션 실습(2)
16	*

6. 결 론

이 연구는 도서관에서 이용자들에게 정보활용능력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사서의 역량과 자질을 키움으로써, 현재 국내 대학도서관에서 '정보이용교육', '도서관이용교육', '정보검색교육'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이루어지는 일반적이고 평이한 수준의 정보이용자교육을 한차원 발전시키는 동시에, 도서관 이용자의 정보활용능력을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춘 사서를 양성할 수 있도록 문헌정보

학 교과과정에서 "정보이용자교육"(information literacy instruction) 교과를 개설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교과 모형을 설계하였다.

정보이용자교육 교과는 사서이며 동시에 정보활용능력을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목적의 과목으로, 대학을 졸업한 이후 자신이 근무하게 될 도서관의 이용자에게 적합한 정보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도서관과 정보센터에서 이용자를 교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수학습 자원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교육목표로 하였다. 교육목

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10개 주제를 각각의 단원으로 하여 교육내용을 구성하였으며, 각 단원별로 단원의 주제를 학습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단원의 논거를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모형의 활용은 4년제 대학의 정규 문헌정보학과 교과과정에서 전공과목으로 제안하였으므로 모형의 참고자료와 과제에 대한 부분과 평가항목은 담당교수에게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세부적이거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피하였다.

제안된 정보이용자교육 교과모형은 문헌정

보학과를 졸업하고 도서관에서 정보이용자교육을 담당하는 사서로 일하게 되었을 때 이 교과목을 수강한 문헌정보학 전공생이라면 정보이용자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 사서들이 경험하는 강의와 교육준비에 대한 동일한 어려움에는 당면하지 않도록 구성하고 제안하였으나, 계속되는 이용자의 요구와 변화하는 정보환경은 단지 대학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제시할 것이므로, 이것은 계속교육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숙희. 2000. 정보기술의 발전과 대학도서관의 대응.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1(4): 65-90.
- 강혜영. 2002. 정보이용능력 교육 프로그램의 비교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6(1): 297-320.
- 김순희. 2006. 디자인분야 대학생의 정보문해 교육을 위한 핵심정보문해 능력 분석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3(1): 1-39.
- 남태우, 정재영. 2003. 정보이용교육 활성화 전략: 주제별 운영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제10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45-52.
- 노영희. 2005.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발전현황에 대한 비교·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1): 479-503.
- 노옥순. 1986. 정보서어비스의 새로운 추세와 적용문제에 관한 고찰 『도서관학』, 19: 73-94.
- 박남진. 2005. 『정보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정규과목으로서의 정보활용교육 수강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박명규. 2004. 『학교도서관 중심의 정보교과 교육과정 모형』.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신선옥. 1996. 『대학도서관 이용을 위한 서지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오의경. 2006. 『대학생의 정보리터러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이창수, 김신영. 2003. "정보이용능력 교육 프로

- 그림 개발을 위한 대학구성원간 협력방안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지』, 20(1): 231-250.
- 이현실. 2004. 델파이 조사를 이용한 정보활용능력 교육항목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8(1): 303- 322.
- 정춘화. 1995. 미국과 한국의 참고봉사 교육의 비교분석. 『도서관학논집』, 23: 253-284.
- 최성은. 2005. 『e-learning 대학도서관 이용자교육 프로그램의 설계기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원경대학원 원격교육공학전공.
- 최은주. 1988. 미국대학도서관에서의 서지교육의 동향에 관한 고찰. 『경기대학교 논문집』, 23: 63-88.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0. 『1990년도 도서관(문헌정보)학과 평가종합보고서』. 서울: 대학교육협의회.
- ACRL. May 24, 2006. *What is the Association of College & Research Libraries?* [cited 2006 .6. 22.]. <<http://www.ala.org/ala/acrl/aboutacrl/whatisacrl/whatacrl.htm>>.
- ACRL Education Committee. May 2006. *Library Instruction Courses Offered by Accredited Master's Program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tudies*. [cited 2006. 6. 27.]. <<http://www.lita.org/ala/acrlbucket/iscommittees/webpages/educationa/librarianschools.htm>>.
- ACRL Instruction Section Proficiencies for Instruction Librarians Task Force. 2006. *Proficiencies for instruction librarians and coordinators(Draft)*. [cited 2006. 4. 8.] <<http://www.ala.org/ala/acrlbucket/is/newsacrl/proficiencies.pdf>>.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Presidential Committee on Information Literacy. 1989. *Final Report*.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Baker, B., Mary M. Huston, and Maureen Pastine. 1991. "Making connections: teaching information retrieval." *Library Trends*, 39(3): 210-222.
- Bopp, Richard E. and Linda C. Smith. 2001. *Reference and information services: an introduction*. Englewood, Colo.: Libraries Unlimited.
- Botts, Carroll and Mark Emmons. 2004. "Developing teaching competencies for instructors in the academic library: a case study." *Public Services Quarterly*, 1(3): 65-82.
- Byron, Suzanne. 1995. "Preparing to teach in cyberspace: user education in real and virtual libraries." *Reference Librarian*, 51/52: 241-247.
- Dyer, Esther. 1978. "Formal library science courses on library instruction."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ianship*, 18(4): 359-361.
- Galloway, S. 1976. "Nobody is teaching the teachers." *Booklegger*, 3(13): 29-31.
- Griffiths, Jose-Marie and Donald W. King.

1986. *New direction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Inc.
- Hogan, Sharon A. 1980. "Traingin and education of library instruction librarians." *Library Trends*, 29(1): 105-126.
- Kilcullen, Maureen. 1998. "Teaching librarians to teach: recommendations on what we need to know." *Reference Services Review*, 26(2): 7-18.
- Meulemans, Yvonne Nalani and Jennifer Brown. 2001. "Educating instruction librarians: a model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Research Strategies*, 18(4): 253- 264.
- Larson, Mary Ellen and Meltzer, Ellen. 1987. "Education for bibliographic instruction."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1): 9-16.
- Pastine, Maureen and Karen Seibert. 1980. "Update on the status of bibliographic instruction in library school programs."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1(Fall, 1980): 169-171.
- Peacock, Judith. 2001. "Teaching skills for teaching librarians: postcards from the edge of the educational paradigm." *Australian Academic and Resear ch Libraries*, 32(1): 26-42.
- Posner, George J. and Alan N. Rudnitsky. 2006. *Course Design: A Guide to Curriculum Development for Teacher*. 7thed. New York: Longman Inc.
- Powell, Ronald and Shila D. Creth. 1986. "Knowledge bases and library education."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47(1): 16-27.
- Shonrock, Dianan and Craig Mulder. 1993. "Instruction librarians: acquiring the proficiencies critical to their work."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52 (March/1993): 137-149.
- Smith, Barbara J. 1982. "Background characteristics and education needs of a group of instruction librarians in Pennsylvania."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43(May/1982): 199-207.
- Westbrook, L. 1999. "Passing the halfway mark: LIS curricula incorporating user education courses."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2): 92-98.
- Willson, Lizabeth A. 1987. "Education for bibliographic instruction: combinig practice and theory."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1): 17-25.
- Wittkopf, Babara. 1990. "Proficiencies for BI librarians:: who defines them?" *Research Strategies* 8(2): 102-103.
- Zurowski, Paul G. 1974. *The Information service environment relationships and priorities*. Washington, D.C.: 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